

통일신라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소고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崔 孟 植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유적별 출토예와 搬出遺物 |
| 2. 줄무늬병 및 덧띠무늬병의 범주 | 4.. 考察 |
| 가) 토기병의 범주 | 가) 병의 用度에 관한 검토 |
| 나) 토기병의 분류 및 특징 | 나) 토기병의 編年에 관한 檢討 |
| ① 줄무늬병 | 5. 맺는말 |
| ② 덧띠무늬병 | |

1. 머리말

지금까지 선사시대(先史時代)를 비롯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이후의 많은 유적(遺蹟)이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유적관련 유물들이 어느 정도 검토분석이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연구자의 선호도에 의하여 부분적인 조사나 한계성을 가진 채 다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80년대(年代)이후 들어와 그 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산성(山城), 사지(寺址), 요지(窯地)등 생활유적까지도 점차 그 조사활동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그 전까지 극히 제한적이고 편협된 유적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에서 점차 소홀했던 부분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덧띠무늬병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조사는 '63년도(年度)에 실시된 울릉도 천부동(天俯洞) 2호(號) 및 3호분(號墳)¹⁾ 출토(出土) 덧띠무늬병, 1면 편병(扁瓶), 4면 편병(扁瓶)을 들 수 있다. 그 이후에 경주안압지(慶州雁鴨池)²⁾ 황룡사지(皇龍寺址),³⁾ 익산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⁴⁾등지의 주요 유적(遺蹟)에서부터 기타 산성건물지, 토기요지등의 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分布)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國立博物館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4冊 1963. pp29-43 圖板 22-31

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 1978. 내용편 pp208-211. 도판편 도판 216-217. 해강도자미술관 최건 학예연구장에 의하면 월성군 의동읍 제네리 토기요지에서 줄무늬 토병류를 확인한 바 있다고 하며 이 주변에서도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내용편pp 222,232-238, 도판편 pp285-287

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 「彌勒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내용편pp 377-388, 382-400, 도판편 pp229-233

신라(新羅)가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삼국이 오랫동안 대치함으로써 생겨난 이 질적인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동질적인 면으로 진행되어 갔음은 당연한 추세였을 것이다.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은 다른 몇몇 토기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특징을 말해 줄 수 있는 토기로 판단되고,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정리를 할 단계에 왔다고 느껴졌다. 또 고려청자(高麗靑瓷)의 출현시기를 통일신라시대 후반 경까지도 올려보는 일부 견해도⁵⁾ 나오고 있다. 필자는 유적발굴조사에서 반출(半出)유물을 통한 견해를 붙여 줄무늬병과 고려청자의 발생시기 관계를 고찰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다만 고려청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견해는, 줄무늬병과 일괄출토유물의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층위조사에 따른 밀접한 상·하 상관관계의 결과일 뿐임을 알려둔다.

2. 줄무늬병 및 덧띠무늬병의 범주

가) 토기병의 범주

줄무늬 및 덧띠무늬토기병은 흔히 유병(油瓶)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작은 병이다. 기형 및 문양등으로 보아 단순히 병으로만 부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병의 특징을 바르게 인식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술하고자 하는 토기의 범주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줄무늬병의 기형은 조금 벌어진 굽을 가졌고 기벽은 저부에서 45°-65°가량 벌어지면서 올라가다가 어깨부분에 이르러서 최대지름을 이룬다. 이 토기는 덧띠무늬병과 함께 대체로 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줄무늬병의 외부색조는 회청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태토내부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줄무늬병은 전 기벽외부에 검은 유약을 바른 듯이 자연유(自然釉)가 곱게 흘러 번들거리는 예가 많고 부분적으로 산화된 예도 있다. 그러나 태토에 따라 회색을 띠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정치는 않다.

덧띠무늬병은 기벽에 줄무늬병의 음각침선 대신, 얇고 긴 돌띠를 세로로 덧대어 붙인 양식이다. 이 덧띠무늬병은 덧띠를 대어 덧붙인 점 이외에는 줄무늬병과 기형, 크기 등의 측면에서 보면 줄무늬병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줄무늬병은 단순히 날카로운 도구로서 그어내린 것과 줄무늬 위에 빗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시 눌러 찍은 것이 있다.

덧띠무늬병에는 덧띠무늬만 있는 것, 덧줄무늬사이나 그 윗부분에 점선을 이어 시문한 원문,⁶⁾ 거치문⁷⁾, 조족(鳥足)⁸⁾ 같은 문양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몇가지 문양의 양상은 토기병에 대한 명칭에 획일화되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일정하지 않은 명칭은 줄무늬병, 덧띠무늬병, 덧줄무늬병, 주름무늬병, 도장무늬병, 인화(印花)무늬병, 인화문(印花文)덧줄무늬병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명

5) ① 鄭良謨, '高麗靑瓷' 「高麗靑磁名品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1989, pp286-269

②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干支銘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6) 주(註)(2) 앞책

7) 文化財研究所, 翰林大學校博物館 「楊洲大母山城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 4 1990 , pp96, 99, 123-124, 330-331, 334, 343-344, 406, 412, 415, 416, 429, 431, 432

8) 註(7) 앞책 p432

청은 토기에 나타난 문양에 의한 서술자의 편이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여러 명칭을 여기서는 크게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 두가지로 나누어 부르고, 따로 추가된 문양의 토기는 세부설명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줄무늬병 및 덧띠무늬병과 Set로 출토되는 토기로는 그 뚜껑을 뺄 수 없는데, 전체 기형은, 보주형이나 굽형 꼭지를 가졌고 윗부분은 수평(水平)에 가깝다. 몸통은 뚜껑 윗부분의 어깨선 가장자리에서 날카로운 각으로 꺾여 허리가 가름한 곡선을 이룬다. 뚜껑의 몸통에는 1-6조 가량의 음각선이 있는 예가 많고, 윗부분에도 음각선이나 소용돌이 모양의 음각누름문이 있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문양이 없는 경우도 있다.

나) 토기병의 분류 및 특징

① 줄무늬병(삼도1)

여기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줄무늬병의 기형은 표현 그대로 토기병 기벽외부에 금속 또는 대칼같은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병의 어깨에 횡으로 돌려진 음각침선 부분에서 부터 곧바로 굽의 바로 윗부분까지 음각침선을 세로로 뺄뺄하게 그어 내린 것과 침선 위에 또 극히 가늘고 짧은 양각 횡선을 틈이 없이 눌러 찍은 두가지 기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문양토기병은 문양기법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금까지 조사된 영암 구림리토기요지⁹⁾, 익산미륵사지, 10)양주대모산성, 11)완도 전(傳) 법화사지(法華寺址) 및 장도(將島) 12)등지에서 함께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형이나 용도상에서도 거의 같이 판단되었다. 편의상 전자 중 구연부가 크게 외반되어 수평(水平)을 이루는 종류의 줄무늬병을 I-A, 후자인 구연부가 크게 외반되어 수평을 이루는 줄무늬병을 I-B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줄무늬병 I형식은 세로의 가는 줄무늬가 시작되는 지점인 어깨에 깊지 않은 음각선 1조가 횡으로 돌려져 이곳을 기점으로 세로의 줄무늬가 시작되고 있다. 목과 어깨선의 연결부분에는 좀 도톰하게 돌려지거나, 그 대신 음각선이 돌아간 예가 대부분이다. 토기병 I-A, II-A형식 모두 굽이 낮게 마련되었으며 땅에 닿는 접촉부분은 밖으로 좀 벌어져 말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어느 기형이나 바닥에서 등근상태로 크게 벌어지면서 기벽몸통의 윗부분까지 이어 지는데 이 지점이 최대 지름을 이루고, 여기서 크게 꺾여 목밑 부분으로 곧장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각도의 꺾임 상태는 어깨부위가 수평에 가까운 기형을 이루게 한다.

목부분은 대체로 좀 길게 이어졌는데 목의 윗부분과 밑부분의 지름이 큰 차이 없이 연결되는 듯하지만 밑부분이 조금 넓게 성형되었다.

보통 크기를 가진 줄무늬병의 목중앙에는 3조가량의 음각침선이 횡으로 돌려진 경우가 많지만, 높이 2-4cm안팎의 작은 병은 목이 짧아 전체기형과 조화를 이루고 목가운데에 2-3조의 용기선이 돌려진 것이 일반적이다.

토기병 I-A형식은 구연부가 목에서 크게 꺾여 상면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점이 특징이고, 구연부 중간지점에서 단이 지듯이 좀 꺾여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 형식은 후술할

9) 梨花女子大學敎博物館 「靈岩鳩林里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中間報書」 1988

10) 註(4) 앞책

11) 註(9) 앞책

12) 文化財研究 莞島淸海鎭遺蹟 法華寺址 發掘調査 會議資料 1989,1990(1991年 地表調査中 완도 將島에서도 I-A나 II-B계통 줄무늬 병편이 收拾됨)

II-A형식계에 속한다.

안압지출토 줄무늬병주에는 줄무늬가 성기게 나있어 기벽 전면에 세로의 음각선문이 12조 밖에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안압지출토 토기병의 목은 짧은 편이고 구연부가 크게 벌어졌으나 수평(水平)을 이루지는 않았다.

줄무늬가 성긴 이 토기병의 특징은 몸통부의 중앙이 최대지름을 이루고 있으나 어깨 부의가 수평을 이루지 않고 동체부 밑부분과 거의 같은 곡선의 각을 이루는데 있다.

영마구립리 줄무늬병¹³⁾의 한 예는 목위는 없어졌으나, 몸통부 중앙이 최대지름을 이루고 있어 위의 성긴 줄무늬병과 같은 기형을 갖추었다.

그밖에 보령진죽리토기요지에서 출토된 줄무늬 토기병중에는 새로운 줄무늬가 성기게 시문된 예중 두 음각선이 거의 연결되어 1조를 이루면서, 총 12조의 선문을 이루었다. 줄무늬토기병 중 줄 무늬는 뺄뺄하게 시문되었으나 동체부 중앙부가 최대지름을 이루고 있는 기형을 III-A형식, 줄무늬가 성긴병을 III-B형식, 두줄무늬가 1조를 이루면서 성기게 시문된 예를 III-C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줄무늬병 중에는 음각선무늬 4-5줄이 1조가 되어 기벽외부에 등간격으로 시문된 것과, 어깨에 횡선으로 둘러진 1조의 음각선 대신 두 음각선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횡으로 둘러지고 그 사이에는 음각 원문이 둘러진 예가 영암 구립리토기요지¹⁴⁾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파편이어서 전체 기형을 알 수 없다.

② 덧띠무늬병(삼도2)

덧띠무늬병은 크기나 기형상 일반 줄무늬병과 차이점이 거의 없으나, 몸통 중앙이 최대지름을 이루는 기형이 일반적이다.

덧띠무늬병은 흔히 융기문병(隆起文瓶)이라 불리며, 기벽에 덧띠만 새로로 덧붙인 것과, 이 덧띠 사이의 윗부분에 음각 원문을 하나씩 넣은 것, 덧띠사이에 음각 점선과, 지그재그문을 나타낸 것, 덧띠사이에 가는 양각횡선을 눌러 시문한 것(삼도2⑤) 등이 있다.

덧띠무늬병의 기형중 공주 공산성 출토 덧띠무늬병¹⁵⁾은 어깨선이 줄무늬병과 비슷한 수평(水平)에 가까운 기형을 보이고 몸통최대지름을 이루는 지점이 어깨선과 몸통상부 연결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는 예외적인 것으로, 목 역시 줄무늬병과 같이 길게 성형되었다. (삼도 2③)

덧띠무늬병의 구연부도 줄무늬병과 비슷하게, 목에서 곡선을 그리며 크게 꺾여 외반된 형식과 목에서 거의 직각으로 꺾인 다음 구연부 중앙에서 다시 단을 형성한 듯이 위로 꺾여 올라가는 반구형(盤口形)구연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줄무늬병중 I-A, I-B형식은 구연부가 반구형(盤口形)이 아닌 경우 수평(水平)에 가까운 예가 많지만, 줄무늬가 성긴 III-B형은 크게 외반되면서도 줄무늬병 III-B형식과 비슷하다.

덧띠무늬병 기형은 구연부가 크게 곡선을 그리며 외반된 양식을 I-A형식, 반구형(盤口形)과 비슷한 단을 둔 양식을 II-A형식, 어깨에 줄무늬병 I, II형식과 같이 수평(水平)을 이루는 기형을 III-A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형과 기타 특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편년설정과 기원 및 계보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아직 형식분류에 따른 뚜렷한 선후관계, 계보등을 알

13) 註(9) 앞책 p56

14) 註(13) 과 같음

15) 安承周, 李南奭 「公山城百濟推定王宮址發掘調査報告書」(公州師範大學博物館)1987.p137,256

수 없어 앞으로 이 형식 분류를 통한 보다 정확한 연구의 사전작업 성격을 띠었을 뿐임을 말해둔다.

3. 유적별 출토예와 반출유물(搬出遺物)

가) 보령(保寧) 진죽리(眞竹里) 토기요지(土器窯址)¹⁶⁾

① 줄무늬토기병

낮으면서도 밖으로 말린듯한 굽과 수평을 이루는 듯한 어깨 및 구연부, 3조(條)가량의 음각침선이 둘러진 잘룩하고 긴 목, 뾰족한 음각침선은 가장 일반적인 줄무늬병의 한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형식은 I-A형식에 포함되며 익산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¹⁷⁾ 양주대모산성건물지(楊洲大母山城建物址)¹⁸⁾ 등에서 같은 기형(器形)이 출토되었다.

그밖에도 I-A, II-A형식 토기병이 확인된 유적(遺蹟)으로는 천원목천토성(天原木川土城)¹⁹⁾ 양주대모산성(楊洲大母山城),²⁰⁾ 부여부소산성내 건물지(扶餘扶蘇山城內建物址),²¹⁾

보은(報恩) 삼년산성유적(三年山城遺蹟),²²⁾ 완도(莞島) 전(傳)법화사지(法華寺址), 미륵사지(彌勒寺址)등을 들 수 있다.

② 줄무늬토기병 및 뚜껑

토기병의 기형은 III-A이나 III-B형식 계통으로 음각침선 두줄이 거의 연결하여 1조를 이루면서 기벽에 12조가 성기게 시문되었고, 어깨부위에도 1조의 음각침선이 둘러졌다.

Set인 뚜껑이 덮여진 채 출토되어 이 뚜껑의 성격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뚜껑은 보주형 꼭지가 뚜껑 중심에 붙었고, 뚜껑 윗부분에는 2조 음각 침선이 좀 떨어진 채 둘러졌다. 뚜껑의 가장자리와 바깥쪽 음각침선 사이에 약간 길다란 음각선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처럼 둘러졌다. 뚜껑의 옆면은 허리가 잘룩한 모양을 가졌고 6조의 음각침선이 둘러졌다.

이러한 병 뚜껑의 전체기형은 출토유적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기형이나, 이 진죽리 출토병뚜껑의 특징은 몸통에 횡으로 둘러진 6조의 음각침선, 뚜껑 가장자리쪽에 시계반대방향의 소용돌이 점선문양이 새겨졌다. 이러한 형식은 보은삼년산성(報恩三年山城)²³⁾ 조사에서 확인된바 있다.

③ 반출유물(搬出遺物)

줄무늬병 및 덧띠무늬병과 반출(搬出)되는 가장 일반적인 토기는 1면편병(面扁瓶), 4면편병(面扁瓶), 편구병(扁球瓶)을 들 수 있다.

1면편병은 편평한 바닥을 가졌다. 기벽은 바닥부분에서 넓게 벌어져 올라오다가 몸통일 1/3 지점에서 최대지경을 이루고, 이곳을 기점으로 원형같이 둥글게 조금씩 축약되어 목부분까지 연결된다. 목은 좁으나 길지 않게 성형되었다. 목에서 연결되는 구연부

16) 梨花女子大學敎育博物館 「統一新羅·高麗질그릇」 梨花女子大學博物館特別展圖錄(16) ,1987

17) 註(4) 앞책

18) 註(7) P 334

19) 尹武炳 「木川土城發掘調查報告書」(忠南大學博物館 外) 1984.P.30 挿圖7

20) 註(7) 앞책

21) 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發掘調查會議資料

22) 車勇杰 「三年山城 추정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보고서」(忠北大學校 博物館 外) 1983. p 34. 사진 79

23) 註(22)앞책 사진 58

는 곡선을 이루면서 크게 벌어졌고, 구연부 윗부분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윗쪽으로 꺾어져 올라가는 부분은 대부분 90°에 가깝게 각이진 형태이다. 미륵사지출토 편병중에는 이 부분이 크게 각이 저 밑으로 쳐진 상태를 취하고 있는데 따로 만들어 덧붙였음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연부 내부는 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段)이 저 반구형태(盤口形態)를 띠는 점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특징은 1면편병이나 4면편병의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면 편병은 몸통 중앙부에서 목사이까지 1-10조 가량의 음각 횡선을 돌린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침선을 돌린후 굽기 전에 토기병의 한쪽을 넓은 곳에 대거나, 넓은 판자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눌러 편평하게 찌그러 뜨린 것이다.

진죽리토기요지출토 1면 편병²⁴⁾은 목중앙과 목 및 어깨 연결부분, 몸통중앙과 어깨 사이, 몸통 최대지름을 이루는 지점의 바로 윗쪽에 각각 2조씩 조금 10조의 음각선을 돌렸는데 어느 선이나 두 침선을 거의 연결시켜 돌렸다. 또 어깨에 돌린 음각침선 바로 밑부분에 눌러 짚은 점을 돌렸는데, 다른 편병에서는 이러한 점이 찍힌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1면편병의 구연부 옆면의 상·하쪽에는 움푹 패인 침선형태를 돌렸다.

4면편병도 편평한 바닥을 가지며, 기벽은 바닥에서 90°보다 조금 넓게 각이 지면서 몸통 3/4부분까지 뻗어 곧장 올라가다가 3/4지점에서 곡선이지만 크게 축약되어 좁아지면서 목밑부분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몸통부는 밑에서 윗쪽으로 3/4지점이 최대지름을 이룬다.

4면편병은 1면편병 같이 1-4조가량의 음각침선이 몸통이나 목부분에 횡으로 둘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죽리 토기요지에서 출토된 4면편병은 목과 어깨의 이음부분에 연결부분의 침선 2조가 둘러졌고, 어깨부위에도 1조를 돌렸다. 목은 짧은 편이고 목에서 연결된 구연부는 크게 벌어지다가 윗쪽으로 90°가깝게 꺾였고 구연부 옆면에는 침선을 돌린 대신 중앙부위를 움푹 패인 듯하게 성형하였다. 구연부 안쪽은 단이 진 반구형을 가졌다.

편구병(扁球瓶)기형의 특징은 줄무늬병과 비슷한 굽과 바닥에서 45°가량의 각도로 벌어져 올라간 기벽은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몸통 중앙부까지 뻗어 올라 가다가, 몸통 중앙부에서 90°안팎의 각이진 상태로 안쪽으로 꺾여 미미한 곡선을 그리면서도 거의 일직선으로 목밑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편구병의 몸통단면은 마름모를 위해서 그대로 찌그러 눌러 높은 상태를 연상케 한다.

목은 따로 만들어 붙였으며, 목과 구연부의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목을 밑에서부터 윗부분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뻗혀 올렸다. 목의 가장 윗부분은 토기단면상 물방울을 대롱에 거꾸로 매어 단 상태로 조금 불룩하게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진 예가 많다.

편구병도 몸통부에서 목부분에 이르기까지 1-7조 가량의 음각 침선을 횡으로 둘러 예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진죽리토기요지 출토 편구병은 몸통윗부분에 2조의 음각선이 간격을 두고 둘러지고, 목이음 부분에 1조, 목중앙 부위에도 2조 가량의 음각침선이 둘러졌다. 몸통윗부분에 나타난 두 음각침선 사이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린 소용돌이 형태의 누른 음각 선문이 있다. 이 모양은 줄무늬토기병뚜껑에 나타난 누른 음각 짧은 선문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다.

24) 註(16)앞책 p 11

나) 영암구림리토기요지(靈岩鳩林里土器窯址)

동구림리 토기요지(東鳩林里 土器窯址)²⁵⁾는 평면상(平面上) Boat형으로서 밑에서부터 석비례층을 파고 들어가 굴뚝이 있는 윗부분은 석비례천정이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요상(窯床)면은 아랫쪽이 10°안팎의 경사를 보이고 윗쪽으로는 20°-25°가량의 심한 경사도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식과 비슷한 예는 익산(益山) 금마면(金馬面) 신흥리(新龍里) 백제토기요지(百濟土器窯址)²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흥리백제토기요지(新龍里百濟土器窯址)는 입구쪽부터 풍화암반층(風化岩盤層)을 뚫고 등요식(登窯式)으로 경사져 있고 소성실(燒成室)바닥과 천장부 사이가 구림리토기요지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부여정암리(扶餘亭岩里) 백제요지(百濟窯址)가 토기(土器)와 기와를 함께 구웠던 점과, 지하식(地下式), 연소시과 소성실 경계부분이 단(段)을 이루고 있는 점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구림리토기요지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구림리(東鳩林里)토기요지에서 출토된 유물(遺物)은 줄무늬병, 4면편병(扁瓶), 편구병(扁鳩瓶), 토기호, 대접, 반(盤)시루, 대형토기호등 여러 종류가 확인되었다.

이곳 출토 유물은 시대적으로 긴 격차가 나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어느 한 시대의 유물에 한정된 느낌을 주었다.

특히 구림리요지 조사시 서(西)①②구(區) 웅덩이 윗편에 깔렸던 평기와는 짧은 선문사격자문, 변형선문에 변형 방광문(方廊文)²⁷⁾이 시문된 기와는 미륵사지(彌勒寺址) 서역(西域) 공방지(工房址)²⁸⁾출토 기와와 거의 비슷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彌勒寺址) 공방지(工房指)에서도 줄무늬토기병, 덧띠무늬토기병, 중국월주용계백자편(中國越州窯系白磁片), 들대있는 대형호,²⁹⁾ 줄무늬나 덧띠무늬토기병 뚜껑등이 출토된바 있다. 이 유물과 출토유물은 고찰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① 줄무늬병

줄무늬병의 무늬기법의 측면에서 보면 3가지 유형의 확인되었고, 변형된 무늬 1종이 발견되었다.

줄무늬병기형상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덧띠무늬에서 일반화된 몸통을 가졌다. 먼저 줄무늬기법은(I형식)어깨부분에 1조의 음각침선을 횡으로 돌리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세로로 음각침선을 기벽전면에 뾰뾰하게 채우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영암구림리 토기요지에서 출토된 줄무늬병의 몇가지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곳에서 출토된 줄무늬병무늬는 위의 일반적인 기법을 사용한 예가 있고,

둘째, 토기병의 어깨 부위에 1조의 음각침선을 돌리고, 여러 음각침선을 한 단위로 하여 동간격으로 그어 내린 것이 있다. 이 방법은 줄문사이가 좀 넓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토기병편의 구연부는 크게 외반되어 상면이 수평에 가까우나 구연부 마무리는 좀 도톰하게 마무리되었다.

셋째, 무늬병의 어깨부의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조의 음각침선을 횡으로 돌린후 그 두 침선 사이의 공간에 작음 음각 원문을 눌러 돌린 것이 있다. 줄무늬병 무늬중 변형 기법이라 한 것은 빗(줄(櫛))같은 도구로 세로로 눌러 찍어 점선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25) 註(9) 앞책

26) 全榮來(緒方 泉譯)'益山新龍里百濟土器窯址'「古文化談叢」 제19집, 1988 pp171-190

27) 註 (9) 앞책 p63

28) 註(4) 앞책 내용편 pp314-315(탁본 23, 74,96)

29) 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指導委員會議資料 1986

이 방식은 점선무늬를 형성하고 있어 점선무늬병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토기병이다. 구림리출토점선무늬병은 파편으로 남아 있어 전체기형은 확실치 않으나 크기나 남은 몸통, 지부의 상태로 보아 일반 줄무늬병과 같은 기형을 갖추었고, 다만 줄무늬 대신 점선무늬로 대체된 것 뿐이다. 이러한 토기병의 예는 천원(天原) 목천토성(木川土城)출토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목천토성점선무늬병도 파편으로 출토되었으나 남은 기형 중 몸통과, 굽에서 같은 유형임을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어깨부분에 음각침선을 횡으로 1조 둘러 후 점선무늬를 세로로 눌러 시문한 것이다.

구림리토기요지 출토 줄무늬병 중 이형식(異形式)의 예는 토기병 저부에서 약 140°정도 벌어지면서 거의 곧게 뻗은 기벽이 몸통중앙부분에서, 크게 꺾여 벌어진 각도와 비슷한 각도로 축약되어 곧게 병목의 밑부분까지 연결되고 있다. 일반 줄무늬토기병의 경우 최대지름을 이루는 부분이 몸통과 어깨연결선에 해당하고, 이 어깨선을 기점으로 갑자기 크게 꺾이면서 축약되어 어깨부가 거의 수평(水平)을 이루는 일반적인 줄무늬토기병양식에 비하면, 구림리출토무늬병의 이 한 예는³⁰⁾ 이형식(異形式)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굽주변에 조개껍질 흔적이 남아 있는데 구림리토기요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안(海岸)이 가까운 입지조건과 함께 고온(高溫)에서 녹아 저절로 떨어지는 석회질 성분의 조개를 소성(燒成)시에 받침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면편병(面扁瓶)

기형은 평지(平地)를 이루고, 바닥에서부터 어깨선까지 거의 곧게 뻗은 기벽, 몸통과 어깨연결부분 및 밑부분등에 나타난 1-2조 가량의 음각 침선, 반구(盤口)형 구연부를 통해 다른 4면편병과 차이점이 없다. 회색을 띤 표면에는 많은 량의 유약이 흘러 내려 반짝이는데, 미륵사지 동원 승방지출토 4면편병의 녹색계유약이 기벽 전면에 흘러 내려 덩어리 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기형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물외에도 구연부를 포함한 목부분까지 남아 있는 파편이 여러점 확인되었다. 반구형 구연부의 옆면에 두줄 정도의 음각 선이 둘러진 것이 대부분이고, 자연유나 검은 유약이 덮이지 않은 파편도 포함되어 있다.

③ 편구병(扁球瓶)

기형이 완만한 곡선의 크고, 작은 두 덮개를 먼저 성형한 후, 큰 덮개를 밑쪽에 바르게 놓고 작은 덮개를 그 위에 얹어 놓고 접합한 듯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두 덮개가 접합되는 부분은 자연히 마치 아랫입술이 푹 튀어나온 듯한 모양을 이루고 이 푹 튀어나온 돌대선같은 선을 없애지 않았다. 접합부분만 물손질로 곱게 붙인 듯 하다. 편구병의 문양은 목이나 몸통 윗부분에 음각선을 몇 조 시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림리토기요지출토 한 예는³¹⁾ 색다른 무늬를 넣었다. 이 편구병의 목과 그 윗부분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몸통 윗부분 중앙 부분에 1조의 음각침선을 횡으로 둘러고 밑쪽에는 중심선 없는어골문(魚骨文)을 횡으로 전면에 돌려가면서 넣었다. 침선의 윗쪽에는 새로운 점선을 눌러 찍어 전면에 들렸다. 굽은 줄무늬병과 같이 바닥을 밖으로 말아 올린 듯 감았다.

편구병의 다른 예는 몸통기형은 비슷하나 최대지름을 이루고 있는 중앙부의 접합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한 대신 음각선을 1-2조 둘러었다. 한 점은 굽을 역시 밖으로 말아 감은 듯 성형하였고, 병목은 밑에서부터 미미하게 벌어지면서 입술가지 뻗어 입면상으로 보아

30) 註(9) 앞책 pp 47-48

31) 註(9) 앞책 pp 65 사진 37

무쇠솥뚜껑과 흡사하다. 목에 침선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는 굽이 없으며 잔존한 목에 2조 가량의 침선을 횡으로 돌렸다. 후자의 이 두 예는 모두 거칠어 표면에 굽은 모래가 많이 붙었으나 흑회색 경질로 기벽일부에는 질은 유약이 형성되었다.

④ 대호편(大壺片) 및 평기와

목밑에 각이 진 돌대가 들려지고, 외만된 목, 수평(水平)가깝게 벌어진 구연부를 가졌고, 몸통과편에 3조 가량의 돌대가 횡으로 돌려졌다.

경질로서 안팎에 짧은 선문형같은 두드린 자국이 남아 있다.

평기와는 보고서에 의하면³²⁾ 황회색 및 적색계통(赤色系統)으로서, 사격자문, 불규칙한 선문, 어골문(魚骨文), 불규칙한 짧은 선문과 변형 방곽문(方廓文)이 혼용된 문양 등이 조사되었다.

보고서 유물사진 30에 보이는 짧은 선무기와와 불규칙한 선문과 방곽문이 혼용된 기와, 초기 어골문기와는 미륵지(彌勒址)와 서편(西便) 공방지(工房址)에서 앞에 설명한 대호(大壺), 줄무늬토기와 그뚜껑, 중국월주요계(中國越州窯系)해무리굽 백자편(白磁片) 등과 반출(伴出)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구림리토기요지에서 출토(出土)된 유물은 연질토기 대접, 연질 명(皿)형토기, 평지단경호(平地短頸壺), 시루, 주기(注器), 소반(小盤)등이 출토되었다.

다) 안압지(雁鴨池)

안압지발굴조사는 연못지라는 점과 이에 따른 많은 수량(水量), 빨충과 비슷한 토질 등 여러 가지 조건의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층위를 구별하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이후로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달리 한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상의 애로로 인한 각종 유물의 층위구별이나 반출(伴出)유물들의 조사제약은 유물의 편년 설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많은 출토 유물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물만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된 유물들은 위의 조건으로 인하여 안정된 층위에서 반출(伴出)되었거나, 층위상등으로 구분할 수 없었음을 알려둔다.

① 줄무늬병

기벽전면에 음각침선을 뾰뾰하게 나타낸 이른바 줄무늬병 I-A, II-A형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형식(異型式)³³⁾에 속하는 점줄무늬병(IV-A형식)병이 출토되었다.

기형은 좀 벌어진 굽과 크게 벌어져 올라간 기벽은 동체부 중앙부분에서 최대 지름을 이루고, 어깨쪽으로 연결된 동체상면도 아랫부분과 비슷한 곡선으로 좁아지면서 어깨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깨에서 목사이가 다소 길어 토기의 중심부분은 아래로 다소 처진 상태이다. 목에서 연결되는 구연부는 크게 벌어지면서 90°가까이 각이 져 위로 꺾인다. 이러한 구연부는 안쪽에 자연 단(段)이 져 반구형(盤口形)의 모습을 띠게 된다. 몸통 윗부분과 어깨쪽등에는 1조의 음각 침선을 횡으로 돌렸다. 세로무늬는 특이해 빗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깨에 들려진 음각침선을 기점으로 점선을 나타냈는데 등간격으로 기벽 전면에 나타냈다.

32) 註(9) 앞책 p49,63

3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1986.p 93

안압지출토 점선무늬토기병은 기형상 일반적인 줄무늬병이나 덧줄무늬병과는 모양이 다르게 풍김을 알 수 있는데 이 기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저(平底)로 바뀌고, 토기병 상하를 잡고 길게 늘어뜨린 형태³⁴⁾로 10C 안팎의 토기의 모습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평저에 조금씩 벌어지는 기벽이 몸통 1/3아래쯤에서 최대 지름을 이루고 완만하게 좁아지면서 어깨, 목밑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토기양식으로서 어깨와 몸통상부연결부분이 가장 최대지름을 이루는 예도 있으나, 공통적인 현상은 어깨 부분이 옆으로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고, 병의 몸쪽으로 길게 처지는 예는 통일신라말경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10C 전후한 일반적인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② 덧띠무늬병

덧줄무늬병 II-A형식에 속하며, 덧띠는 목의 바로 밑에서부터 굽의 바로 위까지 연결되었으며 10조의 덧띠가 다소 성기게 붙여졌다. 다른 문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목밑부분이 가장 잘록하고, 조금씩 벌어지면서 올라간 목은 구연부로 연결되면서 수평으로 이어지다가 90° 가까이 각이 지면서 윗쪽으로 올라가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구연부내부는 반구형을 띤 것이다.³⁵⁾

또 다른 덧줄무늬병은 I-A형식으로서³⁶⁾ 기형상으로는 구연부만 목부분에서 옆으로 벌어져 그 윗면이 수평을 이룬다. 무늬는 14조의 덧줄무늬를 나타냈고 덧줄 사이사이에는 음각 원문을 어깨선에 하나씩 전면에 돌리고, 몸통에도 눌러 찍은 점선원문과 음각의 둥근 선문으로 메워져 있다. 이러한 점선으로 눌러 나타낸 원문은 이 병을 도장무늬(印花文)병으로도 불리게 한다.

③ 뚜껑

안압지에서 출토된 덧줄무늬등이 뚜껑으로서 전체모양은 물방울과 흡사하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뚜껑 상면에서 옆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다소 완만하고, 그 중 하나는 상면이 둥근 곡선을 이루고 있어 다른 뚜껑의 상면이 수평(水平)에 가까운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한 점은 꼭지가 굽형으로 성형된 점은, 일반적인 기형이 보주형에 비추어 거의 드문 기형을 보여준다. 이 굽형 뚜껑은 잘록한 허리 밑 부분에 1조에 음각 침선이 둘러졌다. 다른 문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1면편병(面扁瓶)

안압지출토 1면편병의 특징은, 다른 유적출토 편병이 굽이 없는 평지(平地)로 알려져 있으나, 좀 벌어진 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짓눌려진 편평한 기벽 반대편의 몸통 기벽이 공처럼 둥근 점에 있다.

어깨나 몸통부분등에는 두 조씩의 음각 침선이 둘러진 점과, 반구형 구연부를 가졌다는 점은 다른 유적출토 예와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1면편병이나, 4면편병의 구연부 측면은 수직으로 성형된 것과 중앙이 좀 넓게 움푹 들어가 마치 넓은 음각선이 둘러진 것과 같이 보이는 것, 상·하단 양쪽에 음각선이 좀 떨어져 둘러진 예가 비교적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안압지 출토 편병은 이 음각선이 좀 길게 나타나고 있다.

34) ① 國立中央博物館「雁鴨池 雁鴨池出土遺物別展」1980,p50(사진 69)

② 註(2) 앞책 내용편 p240(삽도 135)

35) 註(2) 앞책 내용편 p241(삽도 134) 도판편 도판 216

36) 註(34) ① 앞책p93

1면 편병의 한쪽 몸통부분이 거의 공처럼 둥근곡선을 이루는 점과 좀 벌어진 굽을 가진 기형은³⁷⁾ 울릉도 천부동 2호 출토품³⁸⁾이 가장 흡사하다.

⑤ 4면편병(面扁瓶)

기형은 일반 다른 유적출토품과 같다. 4면편병중 구연부측면이 약간 경사졌으나, 음각선이 뚜렷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 사면편병은 어깨선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부분이 각이 져 연결되는 점이 특이하다.

⑥ 토기병(土器瓶)

밖으로 벌어진 굽과 긴 목을³⁹⁾가졌다. 구연부는 단면상 각이 진 가락지를 목 윗부분에 끼워 넣은 듯하다.

몸통은 입면상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줄무늬병이나, 덧줄무늬병, 편구병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에는 나선형으로 음각침선을 돌려 선의 양 끝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목밑부분과 어깨, 몸통상부에도 1-2조의 음각 침선을 정교하게 들렸다.

그밖에도 짧은 태족(台足)이 붙은 연결계 대접⁴⁰⁾이 출토되어 천부동 2호분 출토 유물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마) 황룡사지(皇龍寺址)

황룡사지(皇龍寺址) 유적(遺蹟)에는 줄무늬토기병과 그 뚜껑, 편구병등이 출토되었으나, 반출유물(伴出遺物)이 층위상(層位上)토기편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① 줄무늬토기병 및 뚜껑

비슷한 양식으로 모두 세로의 줄무늬병만 알려져 있다.

전체기형은 일반적인 예와 같다. 한점은 구연부가 목에서 직각에 가깝게 꺾여 벌어진다가 다시 각이 져 위로 꺾이면서 곡선으로 외만되어 마무리된 것이 있고, 목에 3조의 음각 침선이 돌려졌으며, 어깨에 1조의 침선이 돌려진 것이다. 다른 예는 목과 어깨에 각 1조의 침선이 돌려 졌고, 구연부는 윗면이 수평에 가까우나 단이 약하게 져 반구형과 절충된 듯한 모양을 가졌다.

뚜껑은 꼭지가 날카로운 보주형으로 뚜껑윗부분은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경사져 내려온다. 윗면의 가장자리는 동그렇게 홈이 돌려 졌고, 상면과 측면의 연결부분에는 둥근 돌대모양의 형태가 들려져 지붕처마형과 비슷하다.

상면의 중앙지점에는 점선의 소용돌이 무늬가 시계방향으로 채워졌다. 바닥의 외반 정도가 다른 뚜껑보다 심하며, 기벽측면에 2조의 음각침선이 돌려졌다. 기벽전면에 자연 유가 덮였다.

② 편구병(扁球瓶)

목중간 윗부분은 파손되었다. 전체기형은 일반 예와 같다. 몸통중앙인 각이 진 곳부터 어깨부위까지 3조의 음각침선이 등간격으로 돌려졌고, 목이음 부분에는 각진 돌대형이 돌려졌다. 목중앙에도 2조의 음각선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나있다. 목과 어깨부분에

37) 註(34) ① 앞책p93

38) 註(1) 앞책p34 도판 26①

39) 註(2) 앞책 내용편 pp208-209 도판편 도판 216

40) 註(1) 앞책 p34 도판 26

자연유가 덮었고 흑회색을 띤다.

바)미륵사지(彌勒寺址)

미륵사지(彌勒寺址) 건물터⁴¹⁾에서 확인된 줄무늬병, 덧줄무늬병과 그 뚜껑 편구병, 1면 및 4면편병류는 건물지별과 층위별로 구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많이 확인되었다. 그 중 동원동층방지유적(東院東層房址遺蹟)은 북편의 경우 표토하(表土下) 250-300cm상에서 유구가 드러났고, 남쪽에서는 지표하(地表下) 150-170cm 안팎에서 노출되었다. 특히 승방지의 북편과 중간부분에서는 고려시대 유적이 초창기 유적보다 100-150cm 상층에서 뚜렷한 층위구분을 이루며 조사되어 이에 따른 유물의 출토층위도 확실하게 알려졌다.

승방지의 기단토와 접한 층에서는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⁴²⁾명(銘)의 대형 토기호편(土器壺片)이 출토되었고, 같은 층위에서는 수십편이상의 중국월주요계(中國越州窯系) 해무리굽의 백자(白磁)저부⁴³⁾ 및 구연부편, 줄무늬토기병과 덧띠무늬토기병 및 그 뚜껑, 1면 및 4면편병, 몸통에 들대를 돌리고, 목에 파상문을 돌린 대호(大壺), 편구병(扁球瓶)등이반출(伴出)되었다. 이 층위는 안정층으로 고려청자류나 기타 고려시대 유물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유구의 상층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 흑유병, 청자음·양각완, 접시등 많은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① 줄무늬토기병

기형은 다른 예와 차이점이 거의 없으며 줄무늬에 구연부가 수평을 이루는 듯하나, 구분하기 어려운 예도 나타났다.⁴⁴⁾

작은 줄무늬병 I-A, II-A형식은 모두 구연부상면이 수평(水平)을 이루었고, 극히 작은 것은 높이 2.5cm의 소형도 있다.⁴⁵⁾ 작은 병은 어깨부분이 움푹 들어 갔는데⁴⁶⁾ 목과 어깨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뚜껑은 동원승방지 기단토상과 서원공방지(西院工房址)기단토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 한 예는⁴⁷⁾ 보주형꼭지를 가졌고, 상면에서 몸통연결부분이 날카롭게 각이 졌다. 잘룩한 허리에는 2조의 음각 침선이 거의 연결되어 돌아 갔다. 다른 예는⁴⁸⁾ 꼭지가 보주형이 아닌, 작은반원형의 흠덩이를 살짝 부착하여 그 형상만 나타낸 듯하다. 뚜껑 상면은 황용사지 출토 뚜껑과 같이 지붕처마처럼 성형되었다. 이 기형은 마치 뚜껑 기벽위에 무쇠솔 뚜껑을 올려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② 1면편병

평저(平底)의 바닥을 가진 반구형뚜껑토기병의 한 면을 납작하게 눌러 만들어 토기 몸통 1/3부분이 최대지름을 이루고 있다. 목밑과 어깨선 부위에 1-2조가량의 음각 침선을 돌렸다.

41) 註(1) 내용편

42) 註(4) 내용편 pp259,385-386,390(탁본 138)

43) 註(4) 도판편p 257(도판 228⑤⑦)

44) 註(4) 앞책 내용편 pp 377-378,399

45) 註(4) 앞책 내용편 p378

46) 註(4) 앞책 내용편 p 378

47) 註(4) 앞책 내용편 p 353, p 392(사진11,12)

48) 註(47)과 같음

③ 4면편병

반구형구연부, 급하게 좁아진 어깨는 몸통상단이 몸통최대지름을 이루게 하고 편평한 바닥을 가진다. 어깨에서 몸통연결 부분이 좀 완만한 것과 각이 진 것이 있고 구연부밖 측면은 음각선이 뚜렷하지 않은 예가 대부분이다.

④ 덧줄무늬병

기형은⁴⁹⁾ 다른예와 거의 같으나, 덧줄사이에 세로로 눌러 찍은 일렬의 점선문양이 덧줄과 덧줄사이 중간에 덧띠와 같은 길이로 시문되었다. 점 무늬는 이등변삼각형모양으로 찍혔다. 목에는 나선형으로 음각 침선이 돌려져 침선 양끝이 연결되지 않는다. 구연부는 크게 벌어졌으며, 가장자리를 불룩하게 돌렸다.

⑤ 편구병(扁球瓶)

미륵사지 동원승방지 기단토위와, 강당지 북편의 큰 건물지등지에서 출토되었다. 기형은 벌어진 굽, 각이 진 몸통중앙부, 기벽상면에 나타난 2조의 음각침선을 가졌다.

동원승방지출토 편구병은 목이 길고 가장 윗부분이 대롱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도톰한 선이 돌려져 보령 진죽리출토품과 가장 비슷한 기종이다.

바) 울릉도 천부동고분(天府洞古墳)

천부동(天府洞) 2,3호분(號墳)에서 출토된 유물(遺物)은 덧줄무늬편병이 확인되었고, 줄무늬토기병은 보고(報告) 예가 없다. 함께 출토된 유물로는 1면편병, 4면편병, 연결계 태부(台付)대접, 돌대있는 대호(大壺), 장군형토기 등을 들수 있다. 이 유적의 중요성은 반출유물(伴出遺物)이 확실하여 토기편년설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① 덧띠무늬토기병

목의 윗부분은 파손되었다. 기형은 다른 유적출토품과 같고, 덧띠이외의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2호분출토.

② 1면편병

밖으로 벌어진 듯한 굽, 한쪽 기벽이 거의 반원(半圓)에 가까우나 1/2밑부분이 최대지름을 이룬다. 2호분 출토

③ 4면편병

2,3호분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이곳 출토 4면편병은 전체 기형은 다른 유적출토품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몸통부가 입면상 유난히 직사각형에 가깝고 성형된 예⁵⁰⁾가 있다. 몸통중앙부가 최대지름을 이루고 저부와 어깨 부분이 거의 비슷한 폭으로 좁아지는 기형은 2,3호분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두 고분의 축조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토기병을 생산한 요지가 일치될 것으로 보인다. 토기병구연부측면에는 깊게 음각된 침선이 2-3조 나있다.

그밖에 2호분에서는 연결계 태부(台付)대접 2,3호분에서는 돌대가 돌려진 대호(大壺)가 출토되었다.

사) 부여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연못터

49) 註(4) 앞책 내용편 pp377-378,399(사진107)

50) 註(1)앞책 도판 25②, 30①

덧띠무늬토기병 몸통편과 점선 줄무늬토기병(IV-A형식)이 각 1편씩 출토되었을 뿐이다. 잔존한 몸통편으로 보아 덧띠 이외의 다른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눌러 찍은 2종의 반원문(半圓文), 빗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세로의 점선으로 나타낸 낮은 태족(台足)의 대접류등 이른바 인화문(印花文)토기편과 반출(伴出)되었다.

아) 양주대모산성내(楊洲大母山城內) 건물지유저(建物址遺蹟)

양주대모산성(楊洲大母山城)은 선사시대(先史時代)를 비롯하여 삼국(三國)중 백제(百濟),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유물까지 분포(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는 줄무늬토기병, I-A, II-A형식, 덧띠무늬병, 4면편호(扁壺)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① 줄무늬토기병

목까지 온전한 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목을 제외한 부분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과 비교적 많은 파편이 출토되었다. 줄무늬병과, 줄무늬 위에 다시 정밀한 빗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눌러 찍은 가는 짧은 횡선이 메워진 것등이 덧띠무늬토기병과 반출(伴出)되었다.

② 덧띠무늬토기병

역시 완전하게 남은 기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특이한 무늬가 나타났다.

무늬는 덧줄만 있는것⁵¹⁾, 덧줄무늬사이에 세로의 점선이 찍힌것⁵²⁾, 덧줄무늬사이에 윗부분에는 원형음각을 누르고, 바로 밑의 어깨선에는 2조의 음각 직선⁵³⁾이 둘러졌다. 이 침선 밑의 몸통기벽에는 침선에 연접하여 지그재그무늬를 틈없이 연결하여 돌리고, 몸통중앙에 다시 음각원문을 찍어 표현하였다. 몸통밑부분에도 같은 형의 지그재그무늬를 넣었다.

자) 공주공산성(公州公山城) 추정왕궁지(推定王宮址)

백제시대(百濟時代)에서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분포를 보이다.

줄무늬병은 출토되지 않았고, 덧띠무늬토기병, 편구병(扁鳩瓶)이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① 덧띠무늬토기병

덧띠무늬토기병의 몸통기형은 줄무늬병의 기형과 같아 이례적(異例的)인 예⁵⁴⁾에 속한다. 즉 저부에서 60°각도 가량 벌어진 채 어깨선 부분까지 곧장 뻗어 이 부분에서 등근형태로 크게 축약되었다. 따라서 어깨부분은 수평(水平)을 이룰고, 축에서 이어진 구연부는 단이 저 반구형을 이루었다.

목에는 1조의 음각침선을 둘러고, 덧줄사이에 세로의 음각 점선을 눌러 찍었다.

② 편구병

전체기형은 다른 유적출토품과 큰차이가 없다. 굽이 좀 두터워 튼튼하고 높게 부착

51) 註(7) 앞책p330(도판12)

52) 註(7) 앞책p330(도판13)

53) 註(7) 앞책p344(도판14)

54) 註(7) 앞책p137(도면20②),p256(도판73①)

되었다. 몸통중앙의 작은 날카롭게 쪼고 기벽상면에 두 조의 음각 침선이 나타나며, 그 사이에 또 다른 점선문 1조가 시문되었다. 목에는 5조의 음각침선이 나선형으로 돌려졌고, 목은 밑부분부터 끝까지 거의 곧게 뻗은 점이 특징이다.

차) 보은(報恩) 삼년산성(三年山城) 추정 연못터 및 수구지

지표조사(地表調査)에서 줄무늬병의 뚜껑이⁵⁵⁾ 채집되었고, 연못 바닥의 빨흙층에서 줄무늬에 가는 횡선있는 토기병⁵⁶⁾(I-B나II-B형식)의 몸통편과, 점선이 성긴 IV-B형 몸통편이 출토되었다.

병뚜껑은 보주형의 꼭지를 붙였고, 상면의 가장자리에 점선을 찍어 시계 반대방향의 소용돌이무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음각점선으로 채워진 소용돌이 무늬는 황룡사지 토기병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잘룩한 몸통부에는 4조의 음각 침선이 돌려지고, 뚜껑상면에서 동체로 연결되는 지점은 날카롭게 각이 져 미륵사지출토 병뚜껑의 한 예⁵⁷⁾와 비슷하다.

카) 천원(天原) 목천토성(木川土城)

성벽과 그 주변조사만 이루어 졌던 관계로 건물지확인 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대형토기호, 줄무늬토기병, 점선무늬토기병과 통일신라시대의 선문, 격자문기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기와분포⁵⁸⁾를 보인다.

줄무늬토기병은 어깨부와 몸통상면이 남은 편만 출토되었다. 무늬기법상 두 종류가 조사되었다. 어깨에 1조의 음각침선을 돌리고 음각선을 세로로 뺨뺨하게 그어내린 것과, 11조가량의 다치구(多齒具)를 한 단위로 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어 내린 것이 있다. 이 다치구를 사용하여 그어내린 듯한 선무늬토기병은 영암구림지(靈岩鳩林址)토기요지⁵⁸⁻¹⁾완도(莞島) 장도(將島) 유적(遺蹟)⁵⁸⁻²⁾에서도 각 1편씩 확인된 바 있다.

또 다른 점선 줄무늬 기법은 점선을 어깨선에 둘러진 음각침선을 기점으로 굽부분까지 세로로 틈이 없이 눌러 찍은 예가 있다. 이 토기는 목의 중간 윗쪽만 파손되었으며 목밑부분에도 1조의 음각침선이 돌려졌다. 또 다른 점선줄무늬기법은 2조의 점선을 한 단위로 하여 일정한 공간을 두고 세로로 눌러 찍은 것이다. 이 기법은 두 조의 음각줄무늬를 한 단위로 하여 세로로 성기게 그어 내린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4. 고 찰(考察)

가) 병의 용도(用途)에 관한 검토

줄무늬병 토기류는 일반적으로 유병(油瓶)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명칭은 병의 기능을 명칭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55) 註(22) 앞책 사진58

56) 註(22) 앞책 사진 79

57) 註(4) 앞책p 353(삼도11)

58) 註(19) 삼도 7 삼도 14-16

줄무늬병은 대부분이 사지(寺址)이나, 산성내(山城內)의 건물지(建物址), 기타 생활유적(生活遺蹟)에서 넓은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단순한 장식용기(裝式用器)가 아닌 실생활화된 토기임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토기병내부에 충전된 물질에 대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분분석(性分析)을 실시한 보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가능하다면 토기의 용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年代)까지만 해도 시골의 가정에서는 부뚜막 모퉁이에, 평저(平底)에 몸통의 밑쪽이 넓고 목이 길게 뺀 병을 놓고 사용하였다. 그 내용물은 주로 전통적으로 만든 초(醋)나 간장(醬)이 담겨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줄무늬병의 경우 가장 작은 것은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높이 2.5cm 가량 크기를 보인다. 줄무늬병의 크기는 높이8-15cm범주에 포함된 예가 가장 많은 점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기름류의 예도, 자극성 있는 재료등, 소량의 액을 사용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용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한 형태의 기형을 가지 토기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고 사용자의 생활여건과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왕궁리에서 출토된 이 종류의 병은 가장 큰 예에 속하여 앞으로 좀 더 살펴볼 여지를 남긴다.

또 줄무늬, 덧줄무늬병은 진죽리 토기요지조사에서 병위에 뚜껑이 덮여진 채 출토된바 있고, 다른 유적에서도 병과 뚜껑이 반출(伴出)되는 경우가 많아 고급토기병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뚜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더라도, 병에 담은 내용물 중, 증발할 경우에 그 내용물의 기능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거나 쉽사리 없어지는 성격을 지닌 물질을 이병에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토기병의 편년(編年)에 대하여

줄무늬토기병과 덧줄무늬토기병에 관한 편년설정은, 보령(保寧), 진죽리토기요지(眞竹里土器窯址), 영암구림리토기요지(靈岩鳩林里土器窯址), 울릉도 천부동고분, 익산 미륵사지(益山 彌勒寺址)를 중심으로⁵⁹⁾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먼저 지금까지 보고된 관련토기의 편년을 보면, 영암구림리출토유물은 뚜렷한 명시를 하지 않았으나 제주도 괏지패총(郭支貝塚)출토 도질대호(陶質大壺), 4각병(角瓶), 평저호(平底壺)등이 5-7C 로 추정되는 철물과 동반(同伴)됨을 다소 시대를 올려 보았다. 한편 구림리의 경우 규모 위치로 보아 백제말 -통일신라초경에 대중국교류(對中國交流)가 잦은 점으로 6-7C까지 추정하면서, 익산 미륵사지(益山 彌勒寺址)에서 반출(伴出)된 대중(大中)12년(年)(858년(年))명(銘) 대호(大壺)와 비교할 경우는 9C경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아 선부른 결론은 뒤로 미루고 있다. 진죽리(鎭竹里)토기요지에서 일괄 출토된 토기는 9C로 보았다.

울릉도 천부동(天府洞) 고분(古墳)에서는 2,3호분(號墳) 중 비교적 대형묘인 2호분이 정비된 묘제와 안정된 유물출토상태를 들어 통일신라 후반(後半)에 속하는 9-10C에 비정하고 있다. 미륵사지(彌勒寺址)의 경우 동원승방지(東院僧房址)와 사성서편(寺城西便)의 공방지(工房址)관련유적출토 유물을 층위별로 비교 검토하여 토기병과 관련 반출유물에 대한 편년을 살펴보고 아울러 위의 유구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별 검토에서 미륵사

59) 대부분의 다른 유적은 어느 한 단일 시대가 아닌 경우 심하게 교란되었거나, 조사여건상 층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편년설정 기준자료로 선택할 수 없었다.

지에서 확인된 청자류의 상한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

미륵사지동원승방지는 남북으로 긴 (약65m)건물지로서, 동편, 남편의 상층에는 또 다른 후대건물지가 각각 자리잡고 있었고, 이 세 후대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의 토기, 청자(靑磁)(순청자류, 상감청자 주류), 기와가 다량 확인되어 모두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초창기 건물지인 승방지기단토 상층은 부분적으로 교란층(모래, 부식토층)이 확인되었으나, 안정된 층위에서는 목에 파상문이 있고 동체부에 들대가 둘러된 대호(大壺), 줄무늬토기(I-A, II-A형식), 덧띠무늬토기, 1면편병, 4면편병, 편구병(扁鳩瓶)등 많은 중국월주요계(中國越州窯系) 해무리굽백자 저부 구연부편 등이 반출(伴出)되었다. 특히 이 층위에서는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명(銘)의 대호편(大壺片)이 반출(伴出)되어 이러한 일련의 유물들이 편년이 9C를 중심으로 하여 비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위의 반출(伴出)유물이 출토되는 기단토연접 층위에서는 청자류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많은 조사 pit에서 확인되었다.

동원희랑지 가장 낮은 층인 기단토층에서는 청자완(靑磁盃)⁶⁰(좁은해무리굽), 녹색자계편(片), 구연부 안쪽에 음각선이 마련된 구연부편이 확인되는 예가 많았고, 이 낮은 층에서는 청자상감(靑磁象嵌)류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중원(中院)동희랑지 우부(隅部)의 가장 낮은 층에서 확인된 기와 무지에서는 “태평흥국오년경진육월일미륵수룡천방법초(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彌勒藪龍泉房凡草)⁶¹”명문(銘文)기와와 “미륵사(彌勒寺)”⁶² 및 주덕방(住德方)이 혼용된⁶³ 명문와가 반출(伴出)되고, 주변 동일 층위에서는 여러개 포개어진 채 출토된 녹색계 청자(靑磁)대접⁶⁴류가 확인된 바 있다. 중원서희랑지 기단부의 안정층위에서도 “태평흥국(太平興國)” 명문와(銘文瓦)가 순청자편과 반출(伴出)된 예가 있었다. 서원(西院)고려시대건물지가 밀집된 제 10건물지의 연도 기초벽층에서는 작은 돌과 기와를 엮어 쌓았는데 이 기와중에 ‘태평흥국오년(太平興國五年)’명문기와가 확인된 바 있었다. 이 건물지기단층에서는 청자음(靑磁陰)·양각완편(陽刻盃片)과 상감편(象嵌片)이 고려시대기와편과 반출(伴出)된 예가 있다.(삽도 3)

서원(西院) 공방지(工房址)는 고려시대 제4건물지 서편 직하(直下)에 위치하며, 고려시대건물지기단 성토층 보다 100-120cm낮은 층에 자리잡고 있다. 제 4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 청자(靑磁)중 음양각 있는 완류(盃類), 접시류가 출토되었다.

제4건물지 기단을 제거후 기단 성토층에서 해무리굽을 지닌 고려청자 완(盃)저부편이 확인되었다. 공방지 기단토와 제 4건물지 사이의 비문화층은 두께 70cm가량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층위는 다짐을 한 층위로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방지기단토상에서는 줄무늬 및 덧줄무늬토기병과 그 뚜껑, 목에 파상문과, 몸통에 들대있는 대호(大壺), 중국월주요계백자편(中國越州窯系白磁片), 철제 호등(壺鐙)이 반출(伴出)된 바 있다. 또한 좁 떨어진 동일(同一)층에서는 예서체(隸書體)의 “대중(大中)” “명문와(銘文瓦)”⁶⁵가 확인되었는데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이었다. 이러한 몇몇 유구, 유물의 확인조사를 통해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60) 註(4) 앞책 내용편 p 427(삽도97), 도판편 p25(도판 222①)

61) 註(4) 앞책 내용편 p 252(탁본15)

62) 註(4) 앞책 내용편 p252(탁본 4)

63) 註(4) 앞책 내용편 p253(탁본23)

64) 註(4) p421(삽도 73-75), 도판편 p 250(도판 221①-③)

65) 註(4) 앞책 내용편 p253(탁본 27) 도판편 p200(도판171③)

첫째, 줄무늬 및 덧줄무늬토기병, 그 뚜껑은 반출(伴出)되는 1면편병(面扁瓶), 4면편병(面扁瓶), 편구병(扁鳩瓶)과 비슷한 시기나 같은 시기의 기종으로 판단되고,

둘째, 줄무늬토기병과 반출되는 일련의 유물들은 중국당(中國唐) 년호(年號)인 대중년간(大中年間)(847-859)을 중심한 전후 시기의 유물로 드러난 점,

셋째, 이 토기병 기종은 교란되지 않은 층위를 가진 유적일 경우와 단일 토기요지, 고분등에서 고려청자(高麗靑瓷)와 반출(伴出)되지 않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청자(靑磁)도 지금까지 살펴 온 각 유적의 확인조사결과 줄무늬토기병 및 일괄출토 유물과는 반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자의 발생시기를 10C 보다 더 올려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점은 줄 무늬토기병과 반출되는 기종의 하한(下限)시기와 아울러 청자의 상한시기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다만 안압지 관련 문헌기록(文獻記錄)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문무왕(文武王) 16年(674年)⁶⁶條에 안압지를 처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곳 출토 유물의 상한(上限)은 7C 후반(後半)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압지 조성시기는 삼국 통일 직전으로 삼국시대의 유물중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종의 토기병류의 출토 예가 알려지지 않았고, 안압지 유적의 유물이 출토지의 층위를 구분하거나 선후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안압지를 조성했던 당시부터 이 토기병류가 발생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기종의 병이 출토되는 분포도(分布度)가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영역 구분없이 출토되고 있고 동(同) 지역들 모두 토기요지가 확인되고 있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후 지역간에 사회적으로 양립성이 거의 없어지고 어느 지역이나 문화적인 교류등을 통해 이미 동질화(同質化)가 숙성될 즈음에 이러한 토기병이나 이와 반출되는 기종들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줄무늬·덧띠무늬병의 발생 시기는 아직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9C 전반 경을 전후한 어느 시기로 가정해 볼 수 있겠고, 병의 하한(下限)은 10C 후반이후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맺는말

지금까지 보고된 줄무늬병 및 덧줄무늬병과, 이와 관련된 토기의 편년조사는 이글에서 도출하려고 하는 편년설정과 큰 차이점이 없었음은 앞에서 말한 바 그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글을 정리하게 된 동기는 필자가 한 유적(遺蹟)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건물지를 제외하더라도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 30여기 이상을 확인한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적별, 토층별에 따른 토기, 기와, 기타 유물을 층위별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비록 동일 지역 유구라 하는 편협한 한계성이 가로 놓여 있었으나 백제시대(百濟時代)부터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지와 그에 따른 유물을 현장에서 층위별, 유물별로 비교·검토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다.

또한 줄무늬 및 덧띠무늬토기의 하한년대(下限年代)를 설정(設定)함에 있어서,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는 교란층이 아닌 경우, 줄무늬병은 예외없이 중국월주요계(中國越州窯系) 해무리굽 자기(磁器)와 반출(伴出)되는 예를 들어 10C 후반 이후로 떨어지지 않

66)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文武王 14年2月條

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평흥국오년(太平興國五年)(980) 명문와(銘文瓦)가 출토되는 안정층위의 유물 분포(分布)상태는 줄무늬병이나 월주요계(越州窯系) 자기(磁器) 및 그와 반출(伴出)되는 유물을 발견(發見)할 수 없었고, 기와의 제작기법(製作技法) 및 문양상(文樣上)에서도 서로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줄무늬병의 하한(下限) 및 고려청자(高麗靑瓷)의 상한(上限)을 동시에 알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백자(高麗白磁)는 상한(上限)을 10C 경⁶⁷⁾까지 올려보는 경향이 보이는데, 용인요지(龍仁窯址)등지에서 조사된 해무리굽 자기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려백자는 아직 청자만큼 많은 자료는 얻어지지 못한 상태이나 중국 월주요계통의 백자로부터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고려청자와 함께 발생시기를 서로 비슷하게 비정한 견해는 설득력있게 보인다. 고려청자와 백자의 상한 설정은 줄무늬병의 하한과 깊은 관련이 내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유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토기병을 위주로의 설명과 아울러 반출(伴出)되는 편병, 편구병등에도 다소 관심을 두었고, 청자류는 층위별 조사과정에서 자연히 위의 병과 가장 밀접한 층위에서 출토된 까닭에 일종의 부산물(副産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청자류의 출현시기를 비전무가로서 감히 결론부분에서 덧붙인 점은 연구결과의 성격보다는 수 백여개의 pit조사과정에서 시대별 유적·유물별출토조사와 년호명(年號銘)유물등과의 비교·검토에서 얻어진 결과를 소개하는데에 그 의도가 있었음을 거듭 밝힌다.

위에서 언급한 토기병과 반출되는 유물에 관한 편년설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은 자료가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완할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토기병의 용도는 앞으로 좀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형토기병의 기원문제도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67) ①金載悅 「高麗白磁의 研究」 서울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1987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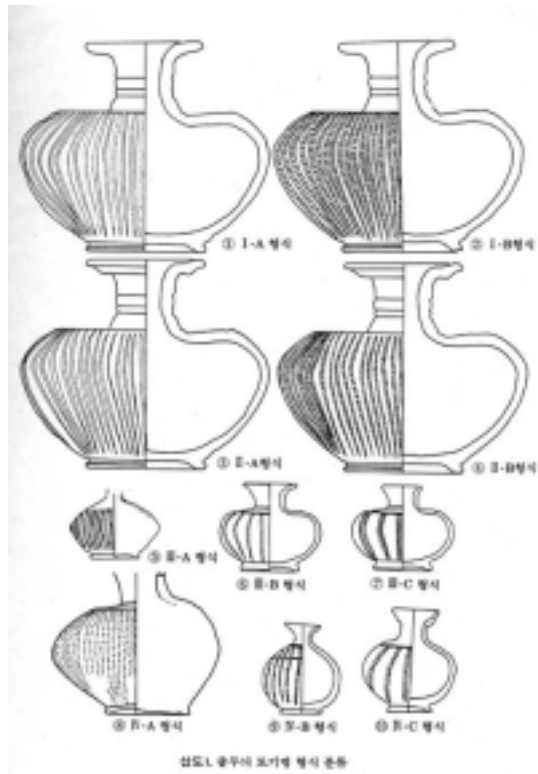
②尹龍二 ‘高麗靑磁의 起源과 發展’ 「全南의 高麗陶磁器」(全南大學校 博物館) 1991. pp106-111

유적	토기별 구분				줄무늬 토기형		덧띠무늬토기형		주형	1면扁甗	4면扁甗	扁球甗	備考
	I	II	III	IV	I	II							
保寧黃竹里 土器 竈址	0	0	0		0	0	0	0	0	0	0	0	
襄陽 楊林里 土器 竈址	0	0	0							0	0		
益山 靈助寺址	0	0	0		0	0	0	0	0	0	0		
慶州 禮城池			0		0	0	0	0	0	0			
襄陽島 天宮洞 2·3號墳					0				0	0			
慶州 皇龍寺址	0	0						0					
扶餘 定林寺址				0	0								
扶餘 扶餘山城內 建物址		0											
扶餘 定林寺址 院문터				0	0								
靈山 王宮里 王宮瑞우변 土器	0				0								
公州公山城 추성 王宮址							0						
羅州大得山城	0	0			0								4면扁甗
報恩 三年山城	0							0					
天原本川土城				0									
海南九里里 土器 竈址					0								
莞島(傳) 法華寺址	0												
莞島 碧島	0	0		0									
慶州 二聖山城 ⁶⁸⁾				0									
慶州 月城塚子遺蹟										0			
羅州 上橋里 石室墓 ⁶⁹⁾													4면扁甗

줄무늬 및 덧띠무늬토기형 출토지 유적(遺蹟) 현황(現況) 68)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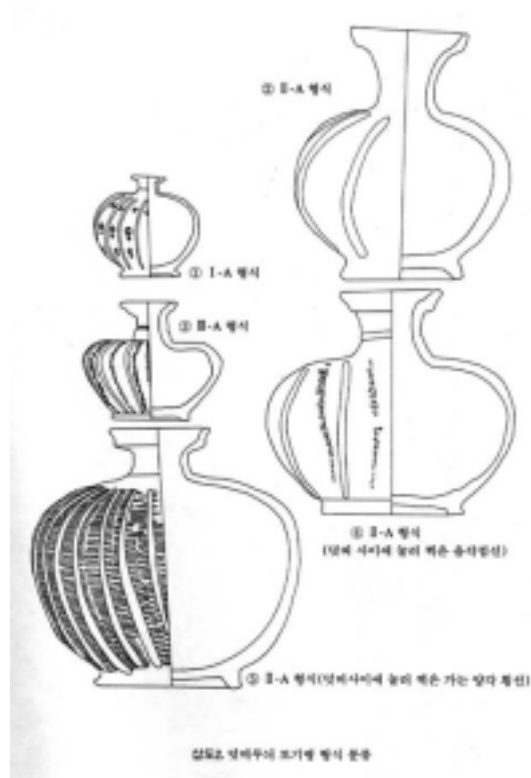
68) 金秉模·沈光注 「二聖山城二次發掘調查中間報告書」 1988.p181

69) 金秉模·崔虎林 「驪州上橋里上方下圖石室墓」 漢陽大學校 博物館叢書第一輯. 1984. 石室墓 주변출토 4面扁甗는 출토위치 및 묘내부 출토유물과 비교하면 石室墓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삼도 1 출무너토기병 형식 분류

- ① I-A 형식 ② I-B 형식 ③ II-A 형식 ④ II-B 형식 ⑤ III-A 형식
 ⑥ III-B 형식 ⑦ III-C 형식 ⑧ IV-A 형식 ⑨ IV-B 형식 ⑩ IV-C 형식



삼도 2 덧띠무늬토기병 형식 분류

- ① I-A 형식 ② II-A 형식 ③ III-A 형식
- ④ II-A 형식(덧띠 사이에 눌러 찍은 음각점선)
- ⑤ II-A 형식(덧띠 사이에 눌러 찍은 가는 양각 횡선)



삽도 3 미륵사지(彌勒寺址) 서역(西域) 공방지(工房址) 및 고려시대(高麗時代) 건물지(建物址) 배치도(配置圖)



사진 1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出土) 줄무늬토기병(Ⅱ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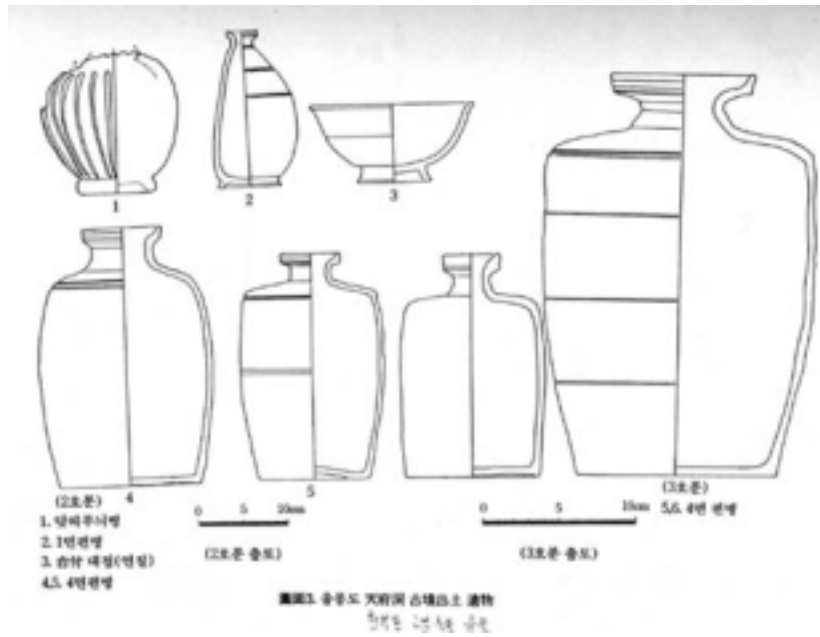
사진 2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出土) 1면편병(面扁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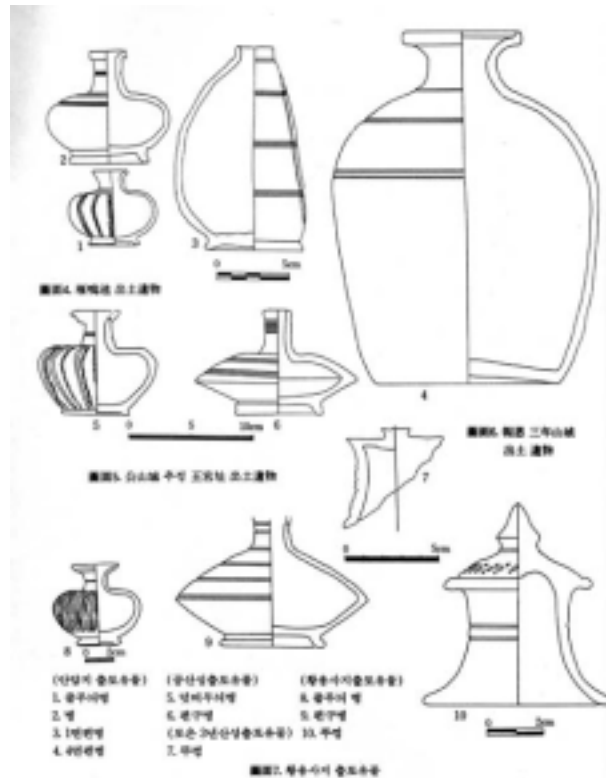
圖面1 영암구림리(靈岩鳩林里) 토기(土器) 요지(窯址) 출토(出土) 토기(土器)



圖面2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유물



圖面3 울릉도 천부동(天府洞) 고분출토(古墳出土) 유물(遺物)



圖面4 안압지(雁鴨池) 출토유물(出土遺物)

圖面5 공산성(公山城) 추정 왕궁지(王宮址) 출토유물(出土遺物)

圖面6 보은(報恩) 삼년산성(三年山城) 출토유물(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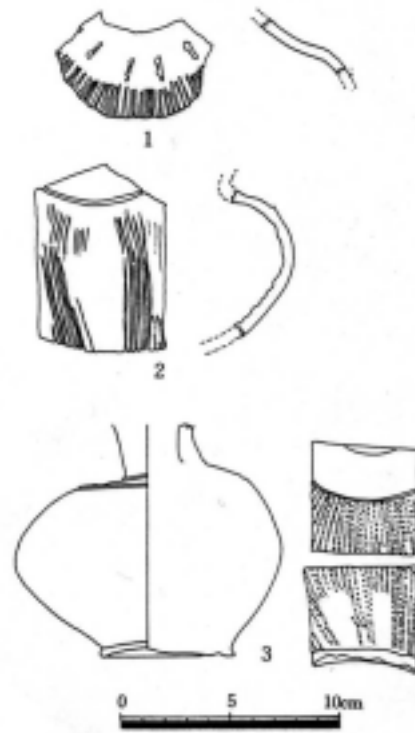
圖面7 황용사지 출토유물

- | | | |
|------------|---------------|------------|
| (안압지 출토유물) | (공산성출토유물) | (황용사지출토유물) |
| 1. 줄무늬병 | 5. 덧띠무늬병 | 8. 줄무늬병 |
| 2. 병 | 6. 편구병 | 9. 편구병 |
| 3. 1면편병 | (보은 3년산성출토유물) | 10. 뚜껑 |
| 4. 4면편병 | 7. 뚜껑 | |



圖面8 양주(楊洲) 대모산성(大母山城) 출토(出土) 유물(遺物)

- 1,2 토기병편 1 2 3 4 5 6 7 8
- 3. 병구연부편
- 5,6 덧띠무늬명
- 7,8 4면편병편



圖面9 천원(天原) 목천산성(木川土城) 출토(出土) 유물(遺物)

(천원목천토성출토유물)

- 1,2 줄무늬병편
- 3. 점선줄무늬병

(부여정림사지출토유물)

- 4. 덧띠무늬병편
- 5. 줄무늬병편



圖面10. 扶餘定林寺址 出土遺物

圖面10 부여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 출토(出土) 유물(遺物)